

# 宋代 儒家의 風水觀 研究

- 程子, 朱子, 蔡發을 중심으로

金惠貞\*

## 目 录

1. 序論
2. 程子の 風水觀
3. 朱子の 風水觀
4. 蔡發의 風水觀
5. 結論

## 1. 序論

後周의 대장, 趙匡胤이 세운 宋朝(960~1279年)는 과학기술과<sup>1)</sup> 농업 면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고,<sup>2)</sup> 경제와 문화, 교육과 학술 방면에서도 고도의 성취를 이룬 시기이다. 송대 학술 연구의 진척은 性理學과 儒學의 흥기로 집약되지만, 풍수지리에 대한 학술적 공헌도 매우 커서, 풍수지리가 현재 전통문화이자 세계문화로 주목받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 大田大學校 國際言語學科 講義專擔敎員

- 1) 인쇄술, 선진적 토목공사, 항해술과 冶金學 등에서 발명이 이루어졌고, 沈括과 蘇頌 같은 과학자가 활약했다. 沈括은 子午圈을 정밀하게 측량하여 磁偏角의 존재를 밝혔고, 수 세기 동안의 북극성의 운행 위치를 확정해내기도 하였다. 蘇頌은 1070년에 植物學, 動物學, 冶金學과 礦物學을 포괄한 내용의 『本草圖經』을 저술하였다.
- 2) 秧馬라는 모내기 기계를 발명하여 비약적인 농업생산량을 가져왔다 : 韓鑒堂 編著, 『中國文化』,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1999年, 48쪽.

송대의 풍수지리 유행과 학술적 진전은 성리학자들이 풍수고전인 『金囊經』을 재편집한다거나, 관찬지리서인 『地理新書』<sup>3)</sup>의 간행 및 北宋의 永安七帝八陵<sup>4)</sup>이 五音葬法의 영향으로 일관되게 丙坐壬向을 하였으며,<sup>5)</sup> 葬地를 중시한 사대부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점<sup>6)</sup> 등에서 나타난다.

당시에 『玉髓眞經』<sup>7)</sup>·『龍格通玄歌』·『吳氏秘訣』<sup>8)</sup>·『陰契陽符』·『師門心法』·『金精口訣』·『懷玉經』·『赤人圖』<sup>9)</sup>·『催官篇』·『旅寓集』<sup>10)</sup>·『平沙玉尺經』<sup>11)</sup> 등과 같은 풍수고전들이 저술되었고, 『宋史』에는 더욱 다양한 풍수 저서들이 기록되어 있다.<sup>12)</sup> 또 楊惟德<sup>13)</sup>이 편찬하여 바친 풍수문헌,<sup>14)</sup> 『筮

- 3) 1051년, 송나라 仁宗의 칙명을 받고 王洙가 地事, 葬事 관련 문헌인 『乾坤寶典』을 펴냈는데, 1071년에 神宗이 이 책에 『地理新書』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鍾義明, 『中國堪輿名人小傳記』,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년, 82쪽.
- 4) 北宋의 황제는 모두 9명인데, 徽宗과 钦宗은 금나라의 포로가 되어 葬地가 불분명하다. 나머지 황제들과 宋 太祖의 부친인 趙宏殷의 능묘를 합하여 七帝八陵이라 한다. 鄭州에서 서쪽으로 70km 거리, 紹興府 會稽縣 寶山 泰寧寺 주위에 있으며, 중국 중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황제능묘군이다.
- 5) 송 황실의 성이 趙이고, 趙姓은 五音에서 角에 배속되기 때문에 角音에 해당되는 壬(서북방) 방향을 向하도록 무덤들을 조성하였다.
- 6) 司馬光의 「葬論」, 李新의 「開穴祭北斗文」, 劉一止의 「吳君平墓誌銘」, 程俱의 「宋奉議郎儒人曾氏墓誌銘」, 胡銓의 「陳大夫墓誌銘」 등 다양하다: 張瑞, 「朱熹風水思想的歷史學研究」, 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 2014년, 148-066쪽 참고.
- 7) 宋 國師였던 張子微(張洞玄)의 저술인데, 그는 張道陵의 三十三代孫이다. 송대의 성리학자인 蔡西山(蔡元定)이 『玉髓眞經』에 대해 發揮하고 宋의 劉允中이 注釋하였다.
- 8) 宋 國師 吳景鸞의 저술이다.
- 9) 雋都人 廖瑀의 저술이다. 『寧都人物志』(卷二)에 雋都人 廖瑀의 저서로 『懷玉經』·『撥沙經』·『入式歌』·『金精龜極』·『地理泄天機』·『葬法新印』 등이 기록되어 있다.
- 10) 宋의 賴文俊(號, 布衣子) 저술이다.
- 11) 『平沙玉尺經』은 元의 大都 조성에 기여했던 劉秉忠(1216년-1274년)의 저술이다.
- 12) 王玉德은 相宅相墓 문헌을 相地術書라고 하여, 『宋史』(元代的 托克托이 1271~1368년 시기에 황제의 명에 따라 五代의 周부터 317년간의 史實을 紀傳體로 저술한 역사책, 本紀·志·表·列傳의 총 496권이며, 元, 至正5년(1345년)에 간행) 『藝文志』에 기록된 풍수 문헌들을 정리하였다. 『地理觀風水歌』·『陰陽相山要略』·『二宅賦』·『行年起造九星圖』·『宅心鑑式』·『相宅經』·『宅體』·『九星修造吉凶歌』·『陰陽二宅歌』·『陰陽葬經』·『葬疏』·『堪輿經』·『太史堪輿』·『太史堪輿歷』·『黃帝四序堪輿經』·『五音三元宅經』·『陰陽宅經圖』·『二宅心鑑』·『陰陽二宅圖經』·『黃帝八宅經』·『淮南王見機八宅經』·『葬範』·『地理六壬

原總錄』은 음택 풍수지리의 종합서로서,<sup>15)</sup> 元대에 『瑩原總論』이라 하여,<sup>16)</sup> 음양학 과시과목으로 조선 초기에도 언급되고,<sup>17)</sup> 『胡舜申』으로 수용되어 조선시대 음양학 과시과목으로 활용된다.

송대 풍수문화의 발전 이면에는 성리학자들의 심도 깊은 연구가 있었다. 풍수지리의 대강과 목적을 밝힌 程頤의 「葬說」과 朱熹의 「山陵議狀」, 형세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蔡發의 『發微論』과 『名山論』, 이기론을 표방한 『胡舜申』등이 대표적인데, 위 저서들은 元代·明代·清代, 조선시대, 그리고 현재까지 양국 풍수문화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sup>18)</sup>

程頤와 朱熹가 풍수문화 발전에 공헌이 큰 점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sup>19)</sup>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연구를 재확인하고 또 성리학자로서 보다는 풍수지리 연구가로 더욱 유명한 蔡發<sup>20)</sup>의 영향력이 매우 큰 점에 주목함으로써 송대의

六甲八山經』·『郭璞葬書』·『陰陽二宅集要』·『黃石公八宅』·『一行禪師葬律秘密經』·『青烏子改墳枯骨經』·『青囊經歌』·『正龍子經』·『葬白骨歷』·『尋龍入式歌』·『青囊本旨論』·『青囊經』·『玄女妙龍塚山年月』·『八山二十四龍經』·『黃泉敗水吉凶法』·『分龍眞殺五音吉凶進退法』·『地理搜破穴訣』·『臨山寶鏡斷風訣』·『錦囊經』·『玉囊經』·『修造吉凶法』·『周易八龍山水論地理』·『老子地鑑訣秘術』·『五姓合諸家風水地理』·『唐刪定陰陽葬經』·『青烏子歌訣』등이다: 王玉德, 『神秘的風水』,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2003年, 73-74쪽.

13) 宋初의 天文學家로서 점성술에 능했으며 『太一福應集要』·『七曜神氣經』·『乾象新書』의 술수관련 저술이 있다: 吳德慧 編, 『中國古代醜史·巫術醜史·第4卷』, 吉林: 攝影出版社, 2002년, 179-180쪽.

14) 王重民, 『中國善本書提要』,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年, 290쪽.

15) 앞의 책, 『中國古代醜史·巫術醜史·第4卷』, 181-182쪽.

16) 葉新民, 「元代陰陽學初探」, 『元代文化研究』(第1集), 國際元代文化學術研討會專輯,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1年, 95쪽.

17) 세종 때 「묘지에는 도로가 있으면 안 되지만, 60보 거리 밖이면 무방하다」는 『瑩原總錄』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王朝實錄』, 世宗 61卷, 15年(1433년) 7月 22日, 6번째 기사: “瑩原錄曰, 塚墓內不可有道, 宜相去六十步外無妨.”

18) 「장설」과 「산릉의장」은 풍수지리 전범 문장이고, 『발미론』은明代에 유행하다, 清代 『사고전서』808책에 수록되어 있다. 『명산론』과 『호순신』은 조선시대 음양학 과시과목이며 현재 위 저서들에 대한 번역서와 논문들이 다수 있다.

19) 김기덕, 「조선의 매장 문화와 풍수사상」, 『역사학 연구』44집, 2011년, 서울: 민병삼, 「정이천의 풍수지리 사상 연구」, 『東洋哲學研究』 제59집, 2009년 8월 참조.

20) 송대의 理學家, 천문학자로서 『天文星象總論』을 저술하여 지동설을 주장했다. 宋의 理

풍수관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피고자 한다.<sup>21)</sup> 채발의 풍수지리 저서는 明·清代에도 유행했지만, 조선시대 음양학 시험과목 19개 가운데 『名山論』·『辨妄』·『地理新鑑歌』·『坤鑑歌』 4종류가 그의 저술이다.<sup>22)</sup>

송대의 주요 문화 현상으로 성리학과 함께 풍수지리가 있었고, 당시의 풍수문헌들이 현재에도 양국에서 역사 문화적 연구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풍수지리의 내용이 氣, 性, 理, 孝, 祖先崇奉 등<sup>23)</sup> 성리학의 요체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점 등은, 송대 풍수관의 구체적 면모 고찰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작업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적 풍수문화 교류<sup>24)</sup> 이해에 요긴하며, 조선 성리학의 성립과 발전 외에 풍수문화 발전에도 기여했던 송대 성리학자들의 또 다른 면모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2. 程子の 風水觀

程子, 즉 程頤<sup>25)</sup>는 北宋의 대표적인 理學家이자 사상가, 교육자이다. 程顥

宗 황제는 그의 인품 및 유학과 易學에 대한 박학다식을 높이 사서 太子太保로 추증하였다. 채발의 지동설은 Galileo Galilei의 지동설 확립 저서,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의 2대 세계체계에 관한 대화』보다 4세기 앞선다. 채발의 아들 채원정은 성리학자로 유명하고, 손자 蔡沈의 저서 『書集傳』은 원대 과시 준비생들의 모범서가 되었다. 채발의 平生은 『四庫全書』, 193권, 『蔡氏九賢全書』에 기록되어 있고, 저술, 가계 내력, 업적 등의 내용은 후손 蔡有鵬(明代 생존)이 펴 낸 『蔡氏九儒書』(山東의 齊魯書社에서 1997년에 출간)에 있다.

- 21) 『胡舜申』에 대한 연구도 국내에서 상당히 진척되어 있지만, 그 내용과 관련하여 『瑩原總錄』과의 관련성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의 연구를 기약한다.
- 22) 張成圭, 「朝鮮王朝實錄의 風水地理 文獻 研究」,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년, 153쪽 표1.
- 23) 氣는 풍수지리의 핵심이고, 풍수지리에서 人性은 地氣에 따라 형성된다고 본다. 理는 풍수지리 理氣論의 중심 내용이고, 孝와 祖先崇奉은 음택 풍수의 요체로 이해된다.
- 24) 중국 풍수문헌을 바탕으로 조선의 수도, 한양의 위치, 경복궁의 명당 여부, 세종의 능묘 입지, 현릉의 단막 여부, 좌향론과 선조의 회의, 화성과 용건릉의 조성 등이 논의되었고, 19개 서적이 서운관의 음양학 과시서 또는 취재지리서로 채택되었다.

의 친 동생이며 西京의 国子監教授를 지냈으며, 형 程顥와 함께 “洛學”을 제창하여 宋明理學의 기초를 마련했다. 程顥와 학술, 교육사상이 기본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二程”이라 부른다. 이들의 학문은 『二程全書』<sup>26)</sup>에 전해지는데, 「葬說」·「葬法決疑」·「記葬用柩棺事」·「作主式」을 통해 程子是 땅인의 분묘 입지의 중요성, 목적, 이치 등을 설명하였다.

程子是 음택 정조 예측의 목적을 그것의 입지가 좋은지 아닌지를 예측하려는 것이지, 음양가들이 말하는 화복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입지는 땅인의 신령을 편안하게 하여,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무의 뿌리를 튼실하게 복돋으면 나무 가지들이 절로 무성하게 되는 이치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입지가 좋지 않으면,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sup>27)</sup>

이것은 음택 풍수의 이치와 목적을 밝힌 것으로서, 입지가 좋은 장소라야 땅인의 신령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자손들이 편안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의 조화를 강조한 부분이다. 특기할 것은 程子が 땅인을 생명체처럼 인지 가능 존재로 상정하고, 편안하거나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파악했다는 점이다.<sup>28)</sup> 程子の 관점대로라면 땅인의 영혼이 地氣를 느끼고 그것이

25) 程頤(1033年-1107年)의 字는 正叔이며 河南省 洛陽 伊川縣에서 활동하여 伊川先生이라고도 한다. 湖北省 黃陂에서 태어났다. 저서로는 『周易程氏傳』·『遺書』·『易傳』·『經說』 등이 있는데 후세 사람들이 『程頤文集』으로 펴내었다. 明代 후기에 程顥의 저술과 합쳐 『二程全書』로 출간되었다.

26) (北宋)程顥, 程頤[撰], 『二程全書』(『儒藏』(精華編 212冊 集部, 湯一介等總編纂),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9년. 이 책은 北宋의 程顥, 程頤 형제의 저술을 제자들이 모아놓은 것으로, 『遺書』·『補書』·『文集』·『易傳』·『經說』·『粹言』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程頤의 저술 분량이 더 많다. 책에서는 “理”를 우주 본체로 “氣”를 본 질료로 상정하고, 천지 만물의 생성과 身心의 性命 등을 논하였다. 또 ‘性即理’, ‘性即氣’를 중심으로 성리학의 쟁점을 체계화하여 이후 宋明哲學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근대에 王孝魚는 清代에 塗宗瀛이 교감한 『二程全書』를 저본으로, 明清 시기의 기타 각본과 대조, 교감한 후 표점을 찍고 中華書局에서 1981년에 『二程集』을 출간하였다.

27) 위의 책, 『二程全書』, 「葬說」, 622쪽: “卜其宅兆, 卜其地之美惡也. 非陰陽家所謂禍福者也, 地美則神靈安, 其子孫盛, 若培壅其根而枝葉茂, 理固然也. 地之惡者則反是.”

28) 위의 책, 『二程全書』, 「葬法決疑」, 625쪽: “死者如有知, 居之其安乎.”

후손에게 응하게 된다는 음택 풍수의 同氣感應 이치가 쉽게 설명된다.

同氣感應에 대해 程子は 아버지, 할아버지, 자식, 손자는 모두 동기간이기 때문에 조상이 편안하면 자손이 편안하고, 조상이 위태로우면 자손이 위태롭게 되는 이치라고 하였다.<sup>29)</sup> 程子の 이러한 관점에 대해 그의 학풍을 이은 朱子 또한 동일한 견해를 보이며, “결국 자손은 조상의 氣이다. 조상의 기가 (죽어서) 비록 흩어졌다 해도 그 뿌리는 자손에게 있다.”<sup>30)</sup>라고 하였다.

程子は 토색이 자운하고, 초목이 무성한 곳을 좋은 장소로 보고, 땅은 4-5장 정도로 파는 것이 좋고, 돌이 나오거나 물의 침습은 피할 요소로 보았다. 아울러 송진으로 관곽을 칠하고, 석회로 묘의 문을 봉할 것도 제시하였다.<sup>31)</sup>

가족장의 경우 분묘의 위치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昭穆制度를 원칙으로 시조나 태조를 중앙에 두고, 左昭右穆의 상대적 위치에 후대의 분묘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재가한 어머니는 合葬이나 제사를 모시지 않고, 출가했던 딸이 친정으로 돌아오면 무덤을 만들어 묻는다고 하였다.<sup>32)</sup> 또 소목제도를 따르지 않는 분묘 조성은 준비를 어지럽히는 것이니, 지각 능력이 남아있는 망인의 (영혼이)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는가고 한탄하였다.<sup>33)</sup>

程子は 분묘를 조성한 후 五患을 경계했는데, 길을 내거나 성곽이나 연못을 조성한다거나, 세도가에 뺏긴다든지 쟁기로 갈아 경작하는 것 등이다.<sup>34)</sup> 또 방위나 택일에 지나치게 구애받는다거나, 심지어 조상을 모시려는 마음이

29) 위의 책, 『二程全書』, 「葬說」, 622쪽 : “父祖子孫同氣, 彼安則此安, 彼危則此危, 亦其理也.”

30) 朱熹, 『朱子全書·朱子語類·鬼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년, 171쪽 : “畢竟子孫是祖先之氣. 他氣雖散, 他根卻在這裡”

31) 위의 책, 『二程全書』, 「葬說」, 622쪽 : “然則曷謂地之美者, 土色之光潤, 草木之茂盛, 乃其驗也……又鑿地必至四五丈, 遇石必更穿之, 防水潤也, 既葬則以松脂塗棺槨, 石灰封墓門.”

32) 위의 책, 『二程全書』, 「葬說」, 622쪽 : “葬之穴, 尊者居中, 左昭右穆, 而次後則或東或西, 亦左右相對而啓穴也. 出母不合葬, 亦不合祭, 棄女還家, 以殤穴葬之.”

33) 위의 책, 『二程全書』, 「葬法決疑」, 625쪽 : “下穴之位, 不分昭穆, 易亂尊卑, 死者如有知, 居之其安乎.”

34) 위의 책, 『二程全書』, 「葬說」, 622쪽 : “惟五患者, 不得不慎, 須使異日, 不為道路, 不為城郭, 不為溝池, 不為貴勢所奪, 不為耕犁所及.”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음택 선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았다.<sup>35)</sup>

程子は 사회참여 의식도 강하여 당시의 무분별한 풍수지리 활용 세태를 비판하였다. 그는 당시의 음양가들이 괴이하고 헛된 설명으로, 120가지나 되는 풍수 술법의 피해가 막심하고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개탄하였다. 특히 당대 이후부터 세간에 유행한 五姓葬法, 즉 宮商角徵羽의 五姓에 당시의 성씨들을 일괄적으로 대입하는 풍수지리 길흉판단법을 비판하였다.<sup>36)</sup>

또 당시 사람들이 풍수를 논하면서 五姓葬法을 따르지만, 그것과 달라도 크게 해로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맹신하니, 길함을 구하려다 오히려 해롭게 되는 경우임을 지적하였다.<sup>37)</sup>

정자는 埋葬을 (조상의 시신이)보이지 않도록 안장하는 것이니, 장례 후에 다시 改葬하지 않아야 평안하므로 효자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水流가 이로우워 입지가 편안하고 그 결과 근심할 게 없다고 하였다.<sup>38)</sup>

「記葬用柩棺事」에서 정자는 망인의 신령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思考와 상세한 관찰이 필요한데 특히 벌레와 물의 침습을 우려하였다. 망인의 피부에 흙이 닿지 않게 하는 것은, 흙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흙 속에 있는 벌레가 망인의 뼈를 갉아먹을까봐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설명했다. 또 드물게

35) 위의 책, 『二程全書』, 「葬說」, 622쪽 : “拘忌者, 惑以擇地之方位, 決日之吉凶, 不亦泥乎, 甚者不以奉先為計, 而以利後為慮, 尤非孝子安厝之用心也.”

36) 오성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원래의 음양가들은 이런 설법을 쓰지 않았음에도 세간에서 그 출처도 없이 전해지고 있는데, 감여경이라는 책에서 황제가 천로에게 오성설을 말했다고 하지만 황제 시기에는 姬, 姜의 두 세 성씨만이 있었을 뿐이니, 그 당시에 어찌 다섯 성씨가 있었겠으며 그러므로 헛되고 망령된 설법이라는 것이다 : 위의 책, 『二程全書』, 「葬法決疑」, 623-624쪽 : “後代陰陽家流, 競為詭誕之說, 葬書一術, 遂至百二十家, 為害之大, 妄謬之甚, 在分五姓, 五姓之說, 驗諸經典本無證據, 古陰陽家亦無此說, 直是野俗相傳, 竟無所出之處, 惟堪輿經, 黃帝對天老, 乃有五姓之言, 且黃帝之時, 只有姬姜二三姓, 其餘姓氏, 盡出後代, 何得當時已有, 此語固妄謬無稽之言, 其所謂五姓者, 宮商角徵羽是也……自唐而來, 五姓葬法行於世已.”

37) 위의 책, 『二程全書』, 「葬法決疑」, 625쪽 : “而今之葬者, 謂風水隨姓, 而異此无大害也, 愚者執信, 將求其吉, 反獲其凶矣.”

38) 위의 책, 『二程全書』, 「葬法決疑」, 625쪽 : “夫葬者藏也, 一藏之後不可復改, 必求其永安, 故孝子慈孫尤所慎重, 欲地之安者在乎水之利, 水既利則終無虞矣.”

있는 땅 속 생물의 피해는 鐵物로 대비하면서, 늘 있는 벌레의 해로움은 미연에 대비하지 못하는 세태를 염려하고, 견고한 관을 위해 잣나무와 옷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39)</sup>

장례시기를 예정하는 일에 대해서도 정자는 당시 사람들이 택일서만 맹신하는 오류를 시정하고자 했다. 장례를 할 때 일식현상이 나타나면, 길 왼쪽 막사에서 밝기를 기다렸다가 행해야 하고, 반드시 밝을 때 행해야지, 어둡고 컴컴한 시기는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당시 葬書에서 좋다고 하는 乾時와 艮時は 한밤중인데, 어찌 쓸 수 있겠으며 葬書에서 己亥日에 장례를 지내면 무조건 흉하다고 하는데, 己亥日에 장례지낸 기록이 『春秋』에 20회 있지만, 흉한 일이 없었으니 지킬 것은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도리어 지키는 당시 세태를 전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하였다.<sup>40)</sup>

정자의 풍수관은 神主를 세우는 방식과 새길 내용까지 辟穢하고 있다. 밤나무를 재료로 연월일시를 법에 맞추는데 사계절을 본 따 신주받침을 4촌으로 하고, 신주 높이는 12개월을 본 따 1척 2촌으로, 넓이는 한 달을 본 따 30分으로, 두께는 하루의 시간을 본 따 12分으로, 신주 받침의 두께는 1寸2分으로 규격화하였다. 옷칠 전에 새길 내용은 高祖考某官奉諡府君神主를 신주의 가운데에, 孝子某奉祀를 왼 편 작은 글자로 새겨 넣는다고 하였다.<sup>41)</sup>

정자는 입지 선정에서 주위 환경과 시일, 관곽의 재료, 수류 등을 포괄하는

39) 위의 책, 『二程全書』, 「記葬用棺事」, 626쪽: “葬事求安之道, 思之至矣, 地中之事, 察之詳矣. 地中之患, 有二惟蟲與水而已, 所謂毋使土親膚, 不惟以土為汚, 有土則有蟲, 蟲之侵骨甚可畏也. 世人墓中, 多置鐵以辟土獸, 土獸希有之物, 尚知備之. 蟲為必有而不知備何也. 惟木堅縫完則不能入, 求堅莫如栢, 求完莫如漆.”

40) 위의 책, 『二程全書』, 「葬法決疑」, 625쪽: “至於卜選時日, 亦多乖謬. 按葬者逢日食則舍於道左, 待明而行, 行是必須晴明, 不可用昏黑也. 而葬書用乾艮二時為吉, 此二時皆是夜半, 如何用之. 又曰己亥日葬大凶, 今按春秋之中, 此日葬者二十餘人, 皆無其應. 宜忌者不忌, 而不宜忌者反忌之, 顛倒虛妄之甚也.”

41) 위의 책, 『二程全書』, 「作主式」, 626쪽: “作主用栗, 取法於時月日辰, 趺方四寸, 象歲之四時, 高尺有二寸, 象十二月, 身博三十分, 象月之日, 厚十二分, 象日之辰, 身趺皆厚一寸二分……粉塗其前以書屬, 稱屬謂高曾祖考稱謂官, 或號行如處士, 秀才, 幾郎, 幾翁. 旁題主祀之名, 曰孝子某奉祀.”

풍수관을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조상과 후손은 동일한 기로 형성된 관계이므로 조상의 혼신의 안위 여부가 후손의 안위를 결정짓는다는 동기감응의 이치가 담겨 있다. 정자는 망인이라 해도 마치 생명체처럼 의식이 있는 존재로 설명하였다. 또 정자는 망인의 혼신의 안녕을 위해 돌, 물과 벌레의 침습을 경계하고 방위나 택일에의 지나친 얽매임, 오성장법과 같이 근거 없는 이론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또 분묘의 위치는 昭穆制度를 원칙으로 하고, 분묘 조성 후에도 면밀한 관심을 두어야 하며 神主의 규격과 방식까지도 포괄하는 풍수관을 보인다. 정자는 풍수지리의 목적과 원리, 구체적인 적용 내용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제시하였고, 성리학자로서 특히 조상의 영혼을 편안하게 모시는 효자의 마음을 강조하였다.

### 3. 朱子の 風水觀

朱子, 즉 朱熹<sup>42)</sup>에게 풍수지리는 익숙했던 분야이다. 정자와 마찬가지로 주자도 자신의 풍수관을 문장으로 남겨, 風水라는 用語를 사용하여 지리의 원리와 내용, 판단 기준법, 후대에의 당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程子 풍수관의 대상이 주로 음택인 반면, 朱子는 음택과 양택, 심지어 “冀都”<sup>43)</sup>와 같

42) 朱熹(1130년—1200년)는 宋朝의 著名한 理學家, 思想家, 哲學家, 教育家, 詩人이다. 字는 元晦 또는 仲晦이다. 호는 晦庵이며 말년에는 晦翁이라 하였고, 세상에서는 朱文公, 존칭으로 朱子라 한다. 福建省 尤溪縣에서 태어났다. 朱熹는 공자의 親傳 弟子가 아니면서 孔廟 大成殿에 十二哲의 한 사람으로서 위패가 모셔진 유일한 사람이다. 程顥, 程頤의 三傳 弟子이며 저서로는 『四書章句集注』·『太極圖說解』·『通書解說』·『周易讀本』·『楚辭集注』 등이 있고, 후세 사람들이 그의 언행을 바탕으로 『朱子大全』·『朱子集語象』을 펴내었다. 朱熹의 탄생은 그의 고조모가 吉地에 묻히면서 吳景鸞에 의해 “富는 陶朱에 미치지 못하고 貴하기는 五府의 벼슬에 불과하지만, 공자처럼 총명한 현인이 날 것이다.”라는 詩를 통해 예견되었다: 王啓燊 編著, 『地靈人傑』(中冊), 臺灣: 集文書局, 1978년, 6쪽: “富不及陶朱, 貴不過五府, 當出一賢人, 聰明如孔子.”

43) 이곳을 대부분 太行山 아래 北京과 인근 지역으로 보지만, 옛 平陽, 晉州, 蒲阪 등지로 서, 지금의 山西省 臨汾 지역으로 보기도 한다.

은 고대 王都를 예로 들면서 풍수적 시각으로 국토의 지세를 판별하였다.<sup>44)</sup>

朱子は 冀都를 천지의 중간에 위치한 좋은 풍수지형이라 하였다. 雲中에서 발원한 산맥이 등마루를 이루고, 그 서쪽으로 물이 龍門과 西河로 흘러가며, 등마루 동쪽으로 물이 동해로 흘러들며 黃河가 둘러 감싼 오른쪽으로 華山이 우뚝 솟아 있으니 바로 白虎<sup>45)</sup>라고 하였다. 또 화산에서 가운데로 오면 嵩山인데, 앞의 案山이 되고, 계속 지나가면 泰山이 왼 쪽으로 우뚝 솟아 靑龍이 된다고 하였다. 또 淮水 남쪽으로 솟은 여러 산들이 이중으로 案山이 되고, 강남의 여러 산들과 五嶺이 또 세 네 겹의 案山을 이룬다고 보았다.<sup>46)</sup>

朱子가 華山을 白虎로 설명하고, 嵩山을 案山으로, 泰山을 靑龍으로 설명한 것은 東西南北의 支脈을 의미하는 風水地理 四神砂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 운중에서 발원한 산맥(태행산맥)은 冀都 지형의 근원을 설명한 것으로서, 이 또한 도읍지의 지세를 논할 때 지맥의 근원을 밝히는 풍수 내용이다.

위에서 朱子는 淮水와 江南의 산들을 이중 삼중의 案山으로 설명했는데, 현재는 朝山 또는 朝對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겹 수가 많을수록 좋은 풍수적 지형지세로 본다. 또 풍수지리에서는 水流가 環抱하는 지형을 좋은 장소로 판단하는데, 朱子 역시 黃河가 둘러 감쌌다는 표현으로 풍수적 인식을 표현하여, 지맥의 근원, 수류의 환포, 수려한 사신사, 안산의 길한 형세를 종합하여 王都, 冀都의 지세를 판별함으로써 풍수 적용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朱子는 冀都의 지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堯임금이 도읍했던 中原은 풍수가 지극히 빼어나다. 왼 쪽 河東과 太行의 여러 산들이 멀리서 받쳐 주고, 海

44) 도읍지 선정에서 지형지세를 중시하는 것은 그 연원이 오래인데, 周公 시대의 相宅과 卜宅 과정은 『尙書·洛誥』에 자세하다 : 김혜정, 『중국 고전의 풍수지리 사상』, 서울 : (주)한국학술정보, 2008년, 113-122쪽.

45) 虎는 白虎 또는 白虎山이라고도 하며, 風水地理 四神砂 용어로서, 북쪽을 등지고 섰을 때 왼쪽 地脈을 의미한다.

46) 앞의 책, 『朱子全書·朱子語類·天地』, 148쪽 : “冀都是正天地中間, 好箇風水. 山脈從雲中發來, 雲中正高脊處. 自脊以西之水, 則西流入于龍門西河, 自脊以東之水, 則東流入于海. 前面一條黃河環繞, 右畔是華山聳立爲虎. 自華來至中爲嵩山, 是爲前案. 遂過去爲泰山聳于左, 是爲龍. 淮南諸山是第二重案. 江南諸山及五嶺, 又爲第三四重案.”

島의 산들 또한 서로 향하고 있다. 오른 쪽 河南으로 돌아 곧장 泰山에 이르러 동해로 흘러든다. 二重으로 감싼 것들은 蜀 땅으로부터 湖南으로 나가고, 廬山의 여러 산들로 솟는다. 三重으로 감싼 것들은 五嶺으로부터 明越지역에 이르고 또 黑水와 같은 물길은 북쪽으로부터 감아 돌아 南海에 이른다.”<sup>47)</sup> “平陽과 晉州, 그리고 蒲坂은 山이 머리를 다한 곳(지세가 그치고 지맥이 머문 곳)인데, 堯임금과 舜임금이 도읍한 곳이다.……泰山은 太行山의 白虎山이다.”<sup>48)</sup>라고 판별하였다.

朱子の 음택 풍수관은 「山陵議狀」<sup>49)</sup>에 분명하다. 「山陵議狀」에서 朱子는 땅인 埋葬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묻어 드린다는 의미이며, 땅인의 형체가 온전해야 그 신령이 편안해지고, 그래야 자손이 편안하다고 봄으로써 음택 풍수지리의 大綱 및 동기감응 원리에 대해 程子와 동일한 관점을 보인다. 또 朱子는 “藏이라는 것은 조상의 유체를 갈무리하는 것인데, 자손이 그 조상의 유체를 갈무리 할 때 반드시 신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미래의 오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조상의 유체를 보전하면 조상의 神靈이 편안해지고, 이에 따라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어 제사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다”<sup>50)</sup>라고 설명함으로써 신령의 편안함, 후사의 존속, 제사문화의 지속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도 강조하였다.

47) 위의 책, 148쪽 : “堯都中原, 風水極佳. 左河東, 太行諸山相遠, 海島諸山亦皆相向. 右河南遶, 直至泰山溟海. 第二重自蜀中出湖南, 出廬山諸山. 第三重自五嶺至明越. 又黑水之類, 自北纏繞至南海.”

48) 위의 책, 148쪽 : “平陽, 晉州, 蒲坂, 山之盡頭, 堯舜之所都也……泰山却是太行之虎山.”

49) 주자가 송나라 寧宗에게 올린, 6년 전 죽은 효종의 능 선정에 관한 논의로서, 풍수지리 관련 대표 문장 가운데 하나이다. 『인자수지』에서는 “주자는 산릉의장에서 ‘혈을 정하는 법을 정해진 혈 자리에 놓아야 하는 침에 비유하여, 털끝만큼도 어긋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참으로 정확한 논변이다.”라고 하였다 : 『地理人子須知·穴法總論』, 302쪽 : “朱子山陵議狀, 所謂定穴之法, 譬如針灸自有一定之穴, 而不可有毫厘之差, 誠確論也.”

50) [宋] 朱熹, 『朱文公文集』, 卷第十五, 「山陵議狀」: “蓋臣聞之, 藏之為言藏也, 所以藏其祖考之遺體也, 以子孫而藏其祖考之遺體, 則必致其謹重誠敬之心, 以為安固久遠之計, 使其形體全, 而神靈得安, 則其子孫盛, 而祭祀不絕, 此自然之理也.”

朱子は 程子の 풍수관을 계승하면서도 풍수지리의 이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땅인에 대한 후손의 효심이 땅인의 形骸를 온전하게 하고, 형해는 신령을 편안하게 만드는 조건이며, 평안한 신령은 후손을 도와 집안을 편안하게 후사를 지속시키게 한다는 설명을 통해 음택 풍수지리의 근본이 효의 발로임을 논의했다.

朱子は 음택의 입지 선정의 유래는 예로부터의 습속인데, 옛 사람들은 장지를 선택한 후 거북점과 시초점으로 검증하였고, 불길하다는 점괘가 있으면 다른 장소를 골라 다시 점을 쳤지만, 주자 생존 시기에 卜筮의 습속은 사라진 반면 장지선택의 습속은 여전히 남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sup>51)</sup> 또 선비나 서인,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집안에서 조상을 매장하려 할 때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널리 술사를 초빙하고 명산도 구하여 비교, 참고한 후 가장 좋은 땅을 가려낸 연 후에야 장지로 활용하는데, 만약 장지 선택이 정확하지 않아서 장지가 길하지 않으면 반드시 물이 고인다거나, 땅강아지나 개미, 바람과 같은 피해들이 관 속으로 침입하여 땅인의 형해와 신령을 불안하게 하여 자손들 역시 죽거나 절손되는 우환이 생긴다고 보았다. 길지를 얻었다고 해도, 두텁거나 깊게 묻지 않으면 도굴이나 시신이 노출되는 폐단이 생길 것도 염려하였다.<sup>52)</sup>

주자는 葬地 선택에서 지세가 강한지 약한지, 바람이 기를 혹시 흩어지게 하는지, 水土의 깊이, 穴道の 바름, 기맥의 온전함 여부를 살핀 후에 입지를 논할 수 있다고 했다.<sup>53)</sup> 또 주자는 “뚫리거나 구멍이 많은 곳은 地氣가 이미 새어버린 곳이므로 길지가 못되며, 조상의 무덤을 자주 손대면 혼신이 놀라서 재앙이 생기는 이치는 비록 술수라고 해도, 이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sup>54)</sup>라고 하여 장지 선택의 신중함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51) 앞의 책, 「山陵議狀」: “是以古人之葬, 必擇其地, 而卜筮以決之, 不吉則更擇而再卜焉. 近世以來, 卜筮之法雖廢, 而擇地之說猶存.”

52) 김혜정, 『중국 고전의 풍수지리 사상』,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년, 221-222쪽.

53) 앞의 책, 「山陵議狀」: “則凡擇地者, 必先論其主勢之強弱, 風氣之聚散, 水土之淺深, 穴道之偏正, 力量之全否, 然後可以較其地之美惡.”

54) 위의 책, 「山陵議狀」: “至於穿鑿已多之處, 地氣已洩, 雖有吉地, 亦無全力. 而祖塋之側, 數興土功, 以致驚動, 亦能挺災. 此雖術家之說, 然亦不爲無理.”

주자는 풍수지리를 망인의 형해와 신령의 안녕, 자손의 존속과 번영, 그리고 제사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망인의 형해와 신령의 안녕을 보장하는 선결 조건을 후손의 효심을 바탕으로 한 최선의 封墳 입지, 즉 地氣가 머문 吉地의 선택으로 설명하였다. 또 “죽은 사람은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산 사람은 남향을 하는 것은 모두 그 처음을 따르는 것이다. 북쪽에 머리를 두고 묻는 것은 삼대에 걸친 예로서 옛날 사람들은 반드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시신을 묻었다. 대개 남쪽은 양지이고 북쪽은 음지이니, 효자의 마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묘에 묻어드리기는 하면서도 오히려 음지를 등지고 양지를 안게 해드리는 것이다. 남쪽을 등지고 북향하는 것은 반대로 양지를 등지고 음지를 향하는 이치가 아닌가?<sup>55)</sup>라고 하여 좌향론 또한 효심의 발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다.

#### 4. 蔡發의 風水觀

蔡發(1089년—1152년)의 자는 神與이며, 福建省 建阳县에서 태어났고, 그의 묘소가 남아 있다. 南宋의 理学家·天文学家·地理学家이며, 牧堂居士, 蔡牧堂, 北巖老人, 蔡成禹 등으로 불린다.<sup>56)</sup> 『發微論』·『名山論』·『穴情賦』의 저술이 있다.<sup>57)</sup> 그는 博學強記했지만 오로지 독서와 아들인 蔡元定<sup>58)</sup>의 교

55) 위의 책, 『山陵議狀』: “死者北首. 生者南向. 皆從其朔. 又曰, 葬於北方北首, 三代之達禮也. 卽是古之葬者, 必坐北而向南. 蓋南陽而北陰, 孝子之心不忍死其親, 故雖葬之於墓, 猶欲其負陰而抱陽也. 豈有坐南向北, 反背陽而向陰之理乎.”

56) 牧堂은 채성우가 목당에 거주해서 붙은 이름이다. 蔡牧堂과 蔡成禹를 다른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두규, 『名山論』, 서울: 비봉출판사, 2002년, 20쪽.

57) 앞의 책, 『中國堪輿名人小傳記』, 98쪽.

58) 蔡元定(1135년-1198년)이다. 자는 季通이고, 호는 西山이며, 시호는 文節이다. 아버지 蔡發, 二程, 邵雍, 張載, 특히 朱熹의 理學思想을 계승 발전시켜 朱門領袖, 閩學干城라고 불렸다. 象數學, 義理學, 樂律에 조예가 깊었고 蔡淵, 蔡沈 두 아들에게 전수되었다. 저서에 『皇極經世指要』·『洪範解』·『大衍詳說』·『八陣圖說』·『律呂新書』·『發微考』·『燕樂原辨』·『太玄潛虛指要』·『西山公集』등이 있다: 『중국역대인명사전』, 서울: 2010

육에만 전념했다. 朱子は 蔡發의 자식 교육이 이익과 복록을 위해서가 아니라 聖賢의 학문을 가르치고자 함이었고, 蔡發의 사람됨과 식견의 고원함은 세상 사람들이 미칠 바가 아니라는 극찬을 하였다.<sup>59)</sup>

蔡發의 풍수관은 『發微論』과 조선시대 음양학 과시과목인 『明山論』<sup>60)</sup>에 잘 드러나 있다. 『景印文淵閣四庫全書』에서는 『發微論』의 저자를 蔡發의 아들인 蔡季通이며 주자의 문하생이라 했지만,<sup>61)</sup> 오히려 蔡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종 시기에 李秦은 蔡牧堂이 蔡成禹라 했고, 『發微論』의 「向背」篇의 내용을 인용했기 때문이다.<sup>62)</sup> 또 明代의 『지리인자수지』에서도 “宋의 채 목당은 『발미론』을 지었는데, 明代의 십 여 편의 주석서 가운데 鄱陽人 餘祐의 주석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였다.<sup>63)</sup> 또 『形家二十種』에서도 『발미론』을 蔡發이 지었다고 했고,<sup>64)</sup> 『中國堪輿名人小傳記』에서도 蔡發의 저서라 했으므로,<sup>65)</sup> 『발미론』은 채발의 저서가 분명하다.<sup>66)</sup>

년, 이회문화사 참조.

59) 앞의 책, 『中國堪輿名人小傳記』, 97-98쪽: “所以教子者, 不干利祿而開以聖賢之學, 其志識高遠, 非世人所能及.”

60) [宋] 蔡成禹 撰, 『明山論』, 서울: 규장각, 청구기호: 奎 11594(憲宗實錄字交木字, 刊年未詳).

61) (宋) 蔡元定 撰, 『發微論』(『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808冊), 台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年, 189쪽: “發微論一卷, 宋蔡元定撰, 元定字季通, 建陽人, 遊於朱子之門.”

62) 『王朝實錄』, 世宗61卷, 15年(1433), 癸醜, 3번째 기사: “前判淸州牧事李秦上書曰:……有宋牧堂居士蔡成禹以爲: “地理之法, 不過山水向背四字而已.” 현존 『發微論』 「向背」에는 “故嘗謂地理之要, 不過山水向背而已矣.”로 되어 있다.

63) [明] 徐善繼·徐善述 著, 金志文 譯注, 『地理人子須知·引用諸名家堪輿書目』(上),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11年, 27쪽.

64) 『形家二十種』(陽海清編撰, 『中國叢書廣錄』(上冊),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96년, 723쪽)의 목록: “青烏經 題漢青烏子撰, 狐首經 題漢白鶴仙撰, 青囊經 題漢赤松子撰, 管氏指蒙 魏管輅撰, 捉脈賦 晉陶侃撰, 葬書 題晉郭璞撰, 雪心賦 唐荀則魏撰, 撼龍經 唐楊益撰, 疑龍經 唐楊益撰, 一粒粟 唐楊益撰, 黑囊經 五代範越鳳撰, 靈城精義 五代何溥撰, 發微論 宋蔡發撰, 穴情賦 宋蔡發撰, 玉髓經 宋張洞玄撰, 囊金 宋劉謙撰, 望龍經 宋吳景鸞撰, 披肝露膽 宋賴文俊撰, 玉彈子 元耶律楚材撰, 析髓經 明劉基撰, 附聊攝成氏雜撰(即古造葬書佚文佚目).”

65) 앞의 책, 『中國堪輿名人小傳記』(上), 98쪽.

66) 채원정을 저자로 본 사고전서의 기록은 아마 그가 『發微考』를 지었고, 二程, 邵雍, 張

『발미론』은 총 16편이며,<sup>67)</sup> 각 편은 相應, 보완하는 두 요소를 대비시켜 지리의 이치를 설명하였다. 「剛柔」에서는 ‘산천의 剛柔는 음양의 이치와 같고, 강유는 산천의 체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시하였다. 또 ‘산이 우뚝 솟아 있으므로 剛이고, 물은 꿈틀대며 흐르므로 柔이니, 그 이치에 따라 산천의 형상이 있다’고 하였다. 또 ‘지리의 四象을 太柔·太剛·少柔·少剛으로 구분하고 거기에 土·水·火·金(石)을 더해 사람의 육신과 같은 土, 피와 같은 水, 인체의 기와 같은 火, 뼈와 같은 金으로 구분하고, 四象이 합쳐져서 산천이 되는 것은 마치 血, 氣, 骨, 肉이 합쳐져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았다.<sup>68)</sup>

「動靜」에서는 ‘동정이라는 것은 서로 통해있는 것으로서, 예로부터 이르기 를 물은 걸보기에 움직이지만 그 속성은 정적이고, 산은 걸보기에 정적이지만, 그 속성은 동적이라 하였다. 그런데 산은 늘 가만히 있기 때문에 산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물은 늘 움직이기 때문에 자리를 뺏을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으로 산수의 외형과 내재된 본래의 속성을 논하였다.<sup>69)</sup>

「聚散」에서는 ‘산수가 모인 곳은 風氣가 갈무리된 곳이므로 大勢인 聚散을 논한다’<sup>70)</sup>고 설명했다. 또 山水가 가버리는 곳은 風氣가 흩날리는 곳이니,

載, 朱熹의 理學思想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象數學, 義理學, 樂律, 易學에도 조예가 깊었던 대학자로서 청대에도 매우 유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7) 「剛柔」·「動靜」·「聚散」·「向背」·「雌雄」·「強弱」·「順逆」·「生死」·「微著」·「分合」·「浮沉」·「淺深」·「饒減」·「趨避」·「裁成」·「感應」등이다.

68) 앞의 책, 『發微論』 「剛柔」, 190쪽 : “故地理之要, 莫尚於剛柔。剛柔者, 言乎其體質也……則剛者屹而獨存, 柔者洶而漸去。於是乎山川形焉……邵氏以水爲太柔, 火爲太剛, 土爲少柔, 石爲少剛, 所謂地之四象也。水則人身之血, 故爲太柔。火則人身之氣, 故爲太剛。土則人身之肉, 故爲少柔。石則人身之骨, 故爲少剛。合水火土石而爲地。尤合血氣骨肉而爲人。近取諸身, 遠取諸物, 無二理也。”

69) 위의 책, 『發微論』 「動靜」, 191쪽 : “動靜若言乎其雙通也。是以古云, 水本動, 欲其靜。山本靜, 欲其動……夫山以靜爲常, 是惟無動則成龍矣。水以動爲常, 是惟無靜則結地矣。”

70) 풍수지리에서는 망인의 유해를 놓는 장소 혹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거주지로서 합당한 장소를 혈과 주변의 산수가 환포하여 모인 곳으로 본다. 크게 그 형국을 보는 것을 대세를 본다고 하며, 그 대세가 혈을 중심으로 모였는지 산만하게 흩어졌는지를 중요

地理를 논할 때 地形의 巧拙만 보지 말고 大勢를 이룬 곳이라면 기형괴혈이라든가 진정한 자리라고 하였다.<sup>71)</sup> 대세가 아닌 곳은 천연의 巧穴이라 해도 헛된 자리일 뿐이라고 하였다.<sup>72)</sup>

「向背」에서는 풍수지리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산수의 성정, 즉 향배 파악인데, 그것은 사람의 성정과 같은 이치임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서로 두루 돌아보고 함께하자는 뜻이 있는 장소를 추천하였다. 反背의 형국이라면 버리고 돌아보는 형상이므로 吉地가 아니며, 향배의 이치가 명확한 것이 길흉화복의 幾微로 판단하였다.<sup>73)</sup>

「雌雄」에서는 ‘산수가 배합된 것이 자용인데, 산수는 또 각각 자용이 있으므로 양룡은 음혈을 취하고, 음룡이면 양혈을 취해야 자용, 상대가 되는 것’이라 보았다.<sup>74)</sup> 그러므로 ‘융결된 자리는 자용이 합해야 하므로 용혈사수, 좌우의 주와 객은 반드시 대등해야 한다.’는 논지를 통해 地理四科, 즉 龍, 穴, 砂, 水의 조화로운 자용배합을 강조하였다.<sup>75)</sup>

한 관건으로 보고 좋은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71) 풍수지리에서는 山水가 혈을 중심으로 환포해주지 않고 바깥으로 흘러 빠지는 형세를 가버리는 곳이라 하는데, 환포해주지 못하면 바람으로 인해 혈처의 생기가 흩어져버리므로 좋지 않은 환경으로 판단한다. 또 풍수지리에서 입지의 형세를 논할 때 산수의 지형이 수려한지의 여부 외에, 비록 기이한 형상이나 괴이한 형상일지라도 중앙혈처가 보존될 수 있는 곳은 음택이라 양택을 쓸 수 있는 자리로 본다.
- 72) 위의 책, 『發微論』 「聚散」, 191쪽 : “其次莫若觀聚散. 聚散者言乎其大勢也……何謂聚散, 山之所交, 水之所會, 風氣之隈藏也. 何謂散散, 山之所去, 水之所離, 風氣之澆染也. 今之言地理, 往往多論地形之巧拙, 而不明聚散. 大勢若聚則奇形怪穴而愈真正. 大勢若散, 則巧穴天然而反虛假.”
- 73) 위의 책, 『發微論』 「向背」, 191쪽 : “其次莫若審向背. 向背者言於其性情也. 夫地理之與人事不遠, 人之性情不一, 而向背之道可觀. 其向我者, 必有周旋相與之意. 其背我者, 必有厭棄不顧之狀……向背之理明而吉凶禍福之機灼然.”
- 74) 풍수지리에서는 산세와 혈자리를 볼 때, 음양의 조화를 중시하여 일반적으로 산세가 현양하면 혈은 약간 오목한 형태가 길하다고 보고, 산세가 야트막하고 완만하면 돌출된 혈형이 적절하다고 본다.
- 75) 위의 책, 『發微論』 「雌雄」, 191-192쪽 : “此山水配對之雌雄也. 然山之與水又各有雌雄. 陽龍取陰穴, 此龍穴相對雌雄. 陽山取陰爲對, 此主客相對有雌雄. 其地融結則雌雄必合, 龍穴砂水, 左右主客, 必相登對.”

「強弱」에서는 ‘강약은 稟氣인데, 유한 품기의 용은 느리므로 急處가 혈이 되고, 강한 품기의 용은 급하므로 緩處에 자리가 있다’<sup>76)</sup>고 보았다. 「生死」에서는 生氣의 有無에 따라 생사를 구분하면서 맥이 활동적인 것은 산 것이고, 조약한 것은 죽은 것이라 하였고,<sup>77)</sup> 「微著」에서는 기와 맥의 관계를 논하면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데, 맥은 있지만 기가 없는 것은 있어도 기가 있는데 맥이 없는 것은 없다’고 하여<sup>78)</sup> 생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分合」에서는 기맥은 자연스럽게 흐르지만 물길이 나뉘면 기맥이 나뉘고, 멈추면 기맥이 안 보이는 것은 합수로 인한 경계현상이라고 하였다. 또 풍수 지리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晉, 郭璞을 계승하는 면모를 보이는데, 『금낭경』의 ‘땅의 吉氣는 흙을 따라 일어나고, 支脈의 멈춘 기는 물을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내용을 기맥의 원류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sup>79)</sup>

「浮沉」에서는 ‘부침은 表裏를 의미하는데, 脈은 陰陽이 있고, 陽脈은 표면에 있기 때문에 浮라 하고 陰脈은 속에 있기 때문에 沉이라고 하는 것이니, 지리인들이 脈을 보는 것은 의사들이 脈을 관찰하는 것과 같으므로 脈의 부침을 잘 살펴서 穴을 정하는 것은 의술과 같은 이치라고 하였다.<sup>80)</sup> 즉 풍수지리의 술법을 활용하는 것은 사람을 치료하는 의술과 같이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는 애민의식이 엿보인다.

「感應」에서는 풍수지리의 핵심 요체를 積德이라고 강조하였다. 감응이라는

76) 위의 책, 『發微論』 「強弱」, 192쪽 : “其次雙當辨強弱。強弱者言乎其稟氣也……論地理者必須論其稟氣。稟偏於柔, 故其性緩。稟偏於剛, 故其性急。稟剛性急, 此宜穴於緩處。”

77) 위의 책, 『發微論』 「生死」, 192쪽 : “大概有氣者爲生, 無氣者爲死, 脈活動者爲生, 粗硬者爲死。”

78) 위의 책, 『發微論』 「微著」, 193쪽 : “其次又當察微著。微著者言乎其氣脈也。夫氣, 無形者也……故氣微而脈著。然氣不自止, 必依脈而立。脈不自爲, 必因氣而成。蓋有脈而無氣者有矣。”

79) 위의 책, 『發微論』 「分合」, 193쪽 : “其次又當究分合。分合者言乎其出沒也……郭氏雲 : 地有吉氣, 土隨而起。支有止氣, 水隨而比……此古人論氣脈之源流也。”

80) 위의 책, 『發微論』 「浮沉」, 194쪽 : “其次又當別浮沉。浮沉者言乎其表裏也。夫脈有陰陽, 故有浮沉。陽脈常見於表, 所以浮也。陰脈常收於裏, 所以沉也。大抵地理家察脈與醫家察脈無異。善地理者察脈之浮沉而定穴, 其理一也。”

것은 天道인데, 천도는 말없이 화복으로 응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듯이 자리가 좋은 것은 마음가짐이 좋은 것만 못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감응의 이치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리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적덕을 근간으로 삼아야 하는데, 후덕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吉地로서 보답해 주는 것이니 마음은 氣의 주체이고 氣는 德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81)</sup> 아울러 이 책을 쓴 이유는 그와 같은 이치를 밝히려는 목적이었고, 天道는 거짓이 없으니 사람은 마땅히 마음가짐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은 신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sup>82)</sup>

## 5. 結論

송대의 주요한 문화 현상으로 풍수지리의 유행과 저술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程子, 朱子, 蔡發과 같은 유가들의 풍수지리 연구가 후세 풍수지리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송대의 유가들은 기존의 풍수지리 고전의 내용을 계승하고, 음택과 양택 두 범주의 풍수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했지만, 풍수지리의 근본적인 목적과 핵심 요체에 대해서도 효과 적덕을 중심으로 한 동일한 맥락의 견해를 보인다. 풍수지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程子는 망인의 입지를 고를 때 흙의 색, 주위 환경, 관을 만드는 재료, 석회의 사용, 장례의 시기, 소목제도도 중시했고 매장의 깊이, 습기의 여부 등도 주의하였다.

그는 음택의 입지를 신중하게 고른 후 망인을 묻어주는 행위의 근본적인 이유를 후손을 위해서가 아니라, 망인을 먼저 고려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즉 좋은 음택의 입지는 그 자리에 묻히는 망인의 신령을 편안하게 하는

81) 위의 책, 『發微論』 「感應」, 195-196쪽 : “其次又當原感應。感應者言乎其天道也。夫天道不言, 而應福善禍淫, 皆物也。是物也, 諺雲: 陰地好不如心地好。此善言感應之理也。是故求地者必以積德爲本, 若其德果厚, 天必以吉地應之……心者氣之主, 氣者德之符。”

82) 위의 책, 『發微論』 「感應」, 196쪽 : “吾既發明之。故述此於篇終, 以明天道之不可誣, 人心之所當謹。噫觀書者知所慎哉。右發微論止此。”

기능이 있다는 설명을 통해, 풍수지리의 실천을 효의 기본 덕목으로 보았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程子が 땅인의 신령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인지가 가능한 존재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인지가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조상은 죽어서도 후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그 매체는 음택의 입지이고, 입지와 땅인의 신령은 후손에게 동기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체로 간주한 것이다.

朱子도 程子の 풍수관을 그대로 계승하여 음택 입지의 좋은 조건과 주위 환경, 그리고 땅인의 혼신의 편안함을 중시했다. 아울러 땅인의 유체가 편안한 장소에 놓여야 그의 혼신이 편안하게 되고, 평안한 혼신은 다시 후사의 지속을 보장한다고 함으로써, 풍수지리와 제사의 밀접한 관련성도 강조하였다. 나아가 적용 범위가 큰 양택에 대한 풍수관도 피력했는데, 입지가 좋은 장소는 나라의 안녕과도 직결된 핵심으로 파악하였다.

蔡發은 『금낭경』과 같은 풍수 고전의 중심 내용을 계승하면서, 길지 입지 선택의 기준을 기맥을 중심으로 부드러움, 활발한 움직임, 모임과 흠어짐의 필요조건을 고루 갖춘 형세의 장소이며, 脈의 부침을 잘 살펴서 穴을 정해야 한다는 등 풍수지리의 내용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논하였다. 또 풍수지리의 핵심 요체를 積德이라 하였는데, 적덕을 어진 정치를 펼치거나 선행을 쌓는 일이라<sup>83)</sup> 할 때, 조상의 분묘를 통한 후손의 번영에 앞서 착한 마음과 행동을 풍수지리의 주요 발단으로 본 蔡發의 견해는 朱子와 程子の 효 중심 풍수관과 동일한 면모를 보인다.

程子와 朱子, 그리고 蔡發은 풍수지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한결 같이 풍수지리는 수단이 아니며 땅인을 먼저 생각하는 학문이며, 효의 실천을 위한 목적 행위일 때 비로소 가치가 있고, 입지의 주위 환경에 대한 세밀하고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실천적 학문임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풍수지리의 올바른 실천은 개인을 넘어 나라의 번영을 약속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동기는 착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83)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1년, 145쪽.

선행을 쌓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환기시킴으로써 송대 유가 풍수관<sup>84)</sup>의 핵심은 효의 실행과 積德을 위한 실천적 학문으로 요약된다.

---

84) 송대에 풍수학을 전문으로 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호순신이 있는데, 그와 程子, 朱子, 그리고 蔡發의 풍수관의 차이는 상당한 지면을 요구하므로 다음 연구를 기약한다.

## 參考文獻

- 『孝經注疏』,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整理.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0年.
-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 [宋]程顥,程頤,『二程全書』(『儒藏』(精華編 212冊 集部,湯一介等總編纂),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9年.
- [宋]朱熹,『朱子全書』,上海: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2002年.
- 『蔡氏九儒書』,山東:齊魯書社,1997年.
- [宋]蔡成禹撰,『明山論』,서울:규장각,청구기호:奎 11594.
- [宋]蔡元定撰,『發微論』(『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808冊),台北:臺灣商務印書館,1986年.
- [明]徐善繼·徐善述著,金志文譯注,『地理人子須知·引用諸名家堪輿書目』(上),北京:世界知識出版社,2011年.
- 鍾義明,『中國堪輿名人小傳記』,台北:武陵出版有限公司,1996年.
- 張瑞,「朱熹風水思想的歷史學研究」,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2014年.
- 王玉德,『神秘的風水』,南寧:廣西人民出版社,2003年.
- 吳德慧編,『中國古代醜史』,吉林:攝影出版社,2002年.
- 王重民,『中國善本書提要』,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3年.
- 葉新民,「元代陰陽學初探」,『元代文化研究』(第1集),國際元代文化學術研討會專輯,北京:北京師範大學出版社,2001年.
- 王啓燊編著,『地靈人傑』(中冊),臺灣:集文書局,1978年.
- 김혜정,『중국 고전의 풍수지리 사상』,서울:(주)한국학술정보,2008년.
- 김기덕,「조선의 매장 문화와 풍수사상」,역사학연구 44집,2011년.
- 민병삼,「정이천의 풍수지리 사상 연구」,東洋哲學研究 제59집,2009년
- 張成圭,「『朝鮮王朝實錄』의 風水地理文獻研究-『青烏經』·『錦囊經』·『狐首經』을 中心으로」,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년.
- 羅竹風主編,『漢語大詞典』,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2001年.

### Abstract

The study on the Confucian scholars Viewpoint of Feng Shui in Song  
dynasty-Focused on Cheng Zi, Zhu Zi, Cai Fa

Kim, Hye-jung

Feng Shui writings and utilizations are the principal cultural phenomena in Song dynasty. The studies on Feng Shui of Cheng Zi, Zhu Zi, Cai Fa had given big impacts on descendants. Cheng Zi said that the basic reason of choosing good cemetery area is for giving good impacts to dead ancestors's soul. And he thought that the dead ancestors's soul is still alive as like living human beings. Zhu Zi also thought that the location conditions and environments of cemetery area are very important too.

Cai Fa specifically studied on how to choose the site of good Feng Shui environment focused on energy point, strong and soft, vitality, gathering and dispersing. And he thinking that the essence of Feng Shui is building virtue, and emphasized on the importance of mental attitude. Cheng Zi, Zhu Zi, and Cai Fa incessantly emphasized that Feng Shui is not a tool but objective for practicing filial piety, and practicing it, it is necessary to close look on the environment of the site. And the essence of the view point of Feng Shui in Song dynasty is summarized as to build virtues reminding that although practicing the right Feng Shui promises the prosperity of mankind,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have true mental attitude.

**Key words** : Song dynasty, Feng Shui, Cheng Zi, Zhu Zi, Cai Fa, Virtue

투 고 일 : 2015. 9. 10. / 심 사 일 : 2015. 9. 15.~ 2015. 10. 15. / 게재확정일 : 2015. 10. 16.
--